

삼성전자, 미 로우스(Lowe's)사와 전략적 제휴



삼성전자는 6월 9일(현지시간) 미국 노스 캠벨리이나에 무어스빌 (Mooresville)에 위치한 로우스(Lowe's)사에서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2005년 9월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美 전역 로우스사의 1천100개 매장에 공급한다.

'로우스(Lowe's)사는 연간 10%의 영업이익과 '04년 365억불(약42조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 생활가전·용품 매장(Home Improvement Store) 형태 유통의 선두업체로서, 삼성전자와 로우스(Lowe's)사는 이번 전략적 제휴를 계기로 향후 생활가전외에도 디지털미디어 제품까지 점차 판매 영역을 확장하기로 하였다.

미국 로우스사 존 카스버거 총괄 부사장은 "이번 제휴를 통해 로우스는 삼성으로부터 첨단 가전제품을 공급받아 중요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게 됐고, 삼성 브랜드는 미국 소비자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잡을 것이다"라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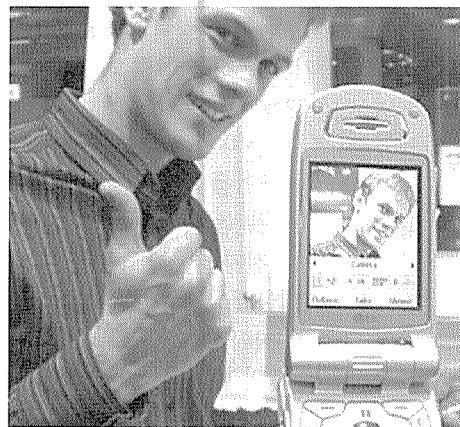
삼성은 휴대폰과 디지털 TV에서 이미 글로벌 브랜드의 위상을 떨치고 있으며 이번 마케팅 제휴를 통해 미국시장내 가전부문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삼성은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급 양문형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생활가전 부문에서 향후 3년간 30억불 이상의 매출을 달성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LG전자 휴대폰, 유럽 3G시장 석권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인 IDC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의 '05년 1분기 유럽 휴대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는 유럽 WCDMA 시장에서 10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 25.5 %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였다.

유럽 WCDMA 시장은 지난해 810만대 규모에서 올해 2,200만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

상되는 WCDMA 분야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LG전자가 세계 유수의 업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성공요인으로는 디지털 가전제품의 첨단 멀티미디어 기술들을 WCDMA 휴대폰에 적용해 동영상 통화, 안정된 통화품질, 긴 배터리 수명, 컴팩트한 사이즈, 세련된 디자인



등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이룬 제품 기술력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 측면에서도 LG전자는 지난해 헤치슨사를 비롯 프랑스의 오렌지사, 스페인의 텔레포니카사 등 유럽의 메이저 3G 사업자와의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성공요인이다.

한편 북美에서도 LG전자는 지난 해 말 국내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목	일자
1	삼성 모니터, 파워 브랜드 육성 나선다	2005.06.13
2	삼성전자, 인천시청 자동차시스템 서버 공급	2005.06.10
3	신 브랜드 캠페인 '이매진(Imagine)'	2005.06.09
4	삼성 블루블랙폰, 유럽서 「名品」 입증!	2005.06.08
5	삼성컴퓨터, 국내판매 1,000만 대 돌파	2005.06.07
6	세계 메모리 표준화 회의 국내 첫 개최	2005.06.06
7	삼성전자, 지능형 주거공간 솔루션 개발	2005.06.01
8	삼성전자, 300mm 플래시 메모리 전용라인...	2005.05.31
9	삼성휴대폰, 프랑스 네티즌 선호도 1위	2005.05.31
10	선없는 홍시아티 아름다운 안방극장	2005.05.28
11	삼성전자, 美 상거래표준협회 최우수업체 선정	2005.05.27
12	미 「캡탈」지, 삼성 '200만 화소 슬라이드폰' 격찬	2005.05.26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목	일자
1	LG전자,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나눔 봉사	2005.06.13
2	LG전자, "서비스 엔지니어 대학서 직접 키운다"	2005.06.10
3	LG전자, CEO강좌 수강생에 연구소 문 활짝	2005.06.10
4	LG전자, 중동아프리카 학교과 평화의 메신저로 나서	2005.06.09
5	최고급 명품간의 만남 LG전자 휴센 이브, 벤츠...	2005.06.09
6	LG전자, 스팀 트럼 대대적 로드쇼 전개	2005.06.07
7	LG전자, 서비스 기술 올림픽 대회 개최	2005.06.01
8	LG전자 자회사 미 제니스사, DTV 원천특허 협상...	2005.06.01
9	LG전자 휴대폰, 북미 시장 2위 도약	2005.05.31
10	홍콩 소비자 위원회, LG전자 3G 폰을 No.1 휴대폰...	2005.05.26
11	LG전자 비디오 제품, 미 최고 제품 인정 받아	2005.05.25
12	제 3회 XCANVAS 여자오픈 골프대회 개막	2005.05.23

업체 중 최초로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싱글러 와이어리스(www.singlair.com)의 WCDMA폰 공급업체
로 선정돼, 올 하반기 본격 상용화될
WCDMA 서비스에 맞춰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의 휴대폰을 공급할 예
정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 홈네트워크 사업 본격 진출

대우일렉트로닉스가 6월부터 건설·통신회사 및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홈네트워크 영업에 나선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5월 24일 "이제까지 기반기술 확보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설, 통신사 중심의 B2B 시장, 일반 소비자 대상의 B2C 시장에 직접 진출할 방침"이며 "대우건설과 홈네트워크에 대해 상용화 방안을 의논중"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는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시행착오를 벤치마킹해 왔으며 단시간에 본궤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간 대우일렉트로닉스는 SKT와 정부 디지털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LG전자와도 홈네트워크 부문 제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업 육성 의지를 비치기는 처음이다. 그 동안 정보가전 회사로서는 삼성전자·LG전자 2개사가 홈네트워크 시장을 주도해온 것을 감안할 때, 대우일렉트로닉스가 가세함에 따라 시장 확산은 물론 경쟁체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홈 네트 워크 의 개방 형 표준인 OSGi(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에도 참여, 홈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디바이스 간에 상호 호환성을 높이고 기능 업그레이드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선진기술을 수용하고 있는 점도 대우일렉트로닉스에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전기, 이색적인 해외 영업인력 교육

삼성전기는 해외 영업 인력들을 대상으로 MLCC 등 칩부품에 대한 기술을 교육하고 주요 영업 정보를 공유하는 "제2회 Passive Components College (수동 소자 대학)"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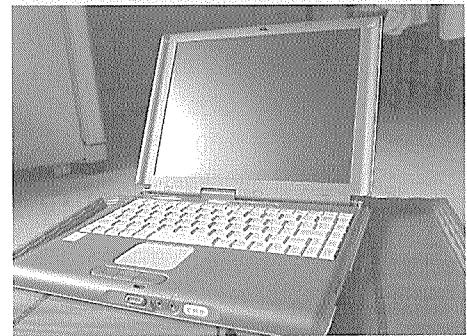
지난해 부산 대회에 이어 2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본사 영업 인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외 대리점 및 해외법인 영업 현재인들의 제품 지식을 배양함으로써 삼성에 대한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별 주요 영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50여명의 해외 영업 인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기 중국 천진법인에서 펼쳐진 이번 교육에는 미주에 거주하는 삼성전기 임직원 뿐만 아니라, 영업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인력까지 포함되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삼성전기 측은 전하였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개최한 1회 대회의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삼성전기 칩부품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Erickson Sales의 Jim Olson 사장은 지난해 대회를 바탕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세계 최대의 PC 메이커와의 거래를 성사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Jim Olson 사장은 "지난해 이 대회를 통해 습득한 칩부품에 대한 다양한 전문 지식과 자신감이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삼성전기는 "단순히 제품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는데 그치지 않고, 삼성전기의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를 정례화하여 삼성전기가 세계 초일류 전자부품 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전하였다.

삼보컴퓨터 차질 없는 A/S 전개



삼보컴퓨터 A/S를 대행하는 국내 최대의 고객서비스 아웃소싱 전문기업 유베이스(대표 윤석중, www.ubase.co.kr)가 5월 28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에 위치한 본사 대강당에서 '2005 유베이스 고객만족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베이스는 고객사의 대 고객서비스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여 고객만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금번 삼보컴퓨터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일반 고객들의 서비스 관련 불편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삼보컴퓨터 국내사업본부장 박원구 상무를 비롯한 삼보컴퓨터 임직원이 함께 참석해 유베이스의 고객만족 실천 결의에 감사와 격려를 나누었다. 삼보 박원구 상무는 "삼보의 해외사업쪽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겠지만, 국내사업부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A/S 역시 유베이스를 통해 기존대로 차질 없이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삼보컴퓨터 전제품 구입고객에게 안심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베이스는 금번 결의대회를 통해 최근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 사전적 대응을 위해 서비스품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임직원 스스로 고객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킴으로서 고객만족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소니 코리아, 동강보존사업을 위한 후원금 전달

소니 코리아는 5월 25일 아셈타워 34층에 위치한 소니 코리아 접견실에서 동강 보존 사업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사)한국 내셔널트러스트에 전달하였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문국현대표(현 유한킴벌리 대표), 전재경 공동운영위원장, 이수용 동강 특위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후원금 전달식에서 소니 코리아의 윤여을 사장은 “소니 코리아는 인간과 환경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이번 동강보전사업에 후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동강 보존사업의 비오톱 조성과 같은 활동에 직원들도 함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활동에 회사와 직원 모두 참여하여 환경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니 코리아는 특히 동강 보존 사업 중 ‘비오톱(biotope)’ 조성 사업에 참가할 계획인데, ‘비오톱’은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도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생물 서식공간을 말한다.

소니 코리아는 내셔널트러스트가 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매입한 동강지역 5천2백

평내에 ‘야생인공연못’을 조성하여 이 지역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동강의 정화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레전자, 하나로텔레콤과 DTV로 포털사업 제휴



올 하반기부터 디지털TV로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로텔레콤과 이레전자는 인터넷과 디지털TV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TV포털 ‘하나포스TV’를 개발해 올 하반기 선보인다고 5월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나로텔레콤 오정택 부사장과 이레전자 정문식 사장은 이날 서울태평로 하나로텔레콤 본사 19층 국제회의실에서 TV포털 서비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양사는 제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TV포털 플랫폼과 콘텐츠, IP 세톱 박스 일체형 인터넷 디지털TV 개발과 보급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인터넷 디지털TV는 본격적인 인터넷TV(IPTV)의 전 단계로 방송은 기존 디지털TV처럼 보고 외부입력 방식으로 하나로텔레콤이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인터넷TV가 방송과 인터넷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데 비해 하나포스TV는 방송과 인터넷 중 한가지만을 이용할 수 있다.

팬택, 직원 암 치료비 3,000만원· 주택자금 1억 지원

팬택은 직원이나 직원 가족이 암 등 중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 3,000만원을 선뜻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사내복지제도를 운영 중 이어서 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팬택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돈 걱정 하게 하자는 말자는 취지에서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최대 1억원, 결혼자금 1,000만원, 의료장례비 500만원 등을 2%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주택 전세·매매 계약, 교통사고 처리, 고소·고발 등의 각종 골칫거리는 사내 법무팀과 전문 변호사가 나서 무료로 상담해 준다.

또 ‘직원 가족의 건강까지 책임진다’는 방침 아래 암·백혈병·심장병의 3대 질환에 대해서는 직원 본인·가족들에게 각각 최대 3,000만원씩의 치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과장급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속자는 본인은 물론 부모와 배우자의 건강검진을 회사 돈으로 받을 수 있다. 각종 의료비 지원은 창업주인 박병엽 부회장의 지시로 올해부터 대폭 강화됐다.

팬택은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들도 신나게 일한다’는 맥락에서 임직원 자녀들이 매년 방학 때 약 2주간 원어민과 함께 생활하며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영어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어린이날에는 직원 자녀가 직접 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 등의 선물을 골라 갖도록 한다.

LS전선, 중국시장에 LS브랜드 알리기 적극 나서…

LS전선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 북경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국제전선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 참가 “LS브랜드” 알



리기에 적극 나섰다.

이번 컨퍼런스 및 전시회는 중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피렐리(Pirelli), 후루까와(Furukawa), 스미토모(Sumitomo), 삼성전자 등 세계적인 통신·전력선 회사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LS전선은 신규 브랜드인 “LS”를 중국에 알리기 위해 이 행사를 공식 후원하였다.

첫날 구자은 중국지역담당(상무)의 기조연설에 이어 해외사업본부장인 황순철 전무가 LS전선의 대중국사업 전략에 대한 특별연설을 가졌다.

특별연설에서 황 전무는 “LS전선이 2004년 장쑤성 우시시 가오신 첨단 산업단지 내 10만평 규모의 생산기지를 조성했는데 이미 자동차용 전선을 생산하는 우시법인이 준공돼 가동 중에 있으며, 사출기 생산법인인 LS기계가 올 하반기 가동될 전망이고 기기선과 부스닥트 공장이 순차적으로 들어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LS전선은 중국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자은 상무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국지역본부를 두고, 우시의 2개 법인과 권선(Enamel Wire)을 생산하는 텐진법인, 빌딩냉동공조시스템을 생산하는 칭따오법인 및 베이징/상하이지사 등의 총괄 관리를 맡게 되며, 특히 중국시장에 LS브랜드를 심는데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LG이노텍 웰빙 바람, 스트레스 Down – 업무능률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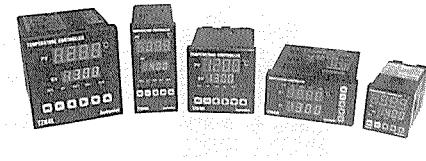
LG이노텍이 올 해 초 임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 차원에서 시작한 두 달 과정의 요가 프로그램이 벌써 제3회를 맞이하며 임직

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LG이노텍 광주공장은 명상과 더불어 유연한 체력 향상을 도와주는 요가 프로그램을 도입, 임직원들의 만족스런 웰빙직장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원들은 퇴근이후 좌석한 공간에서 외부 전문강사를 모시고 하루 두 차례에 걸쳐 부드러운 몸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반복되는 업무에서 보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 업무집중도 역시 향상할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삼조다.

지난 1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사내 요가에 참여하고 있는 RF/POWER사업부 김권수 차장(44)은 그동안 바쁜 업무로 인해 개인적으로 운동하기가 힘들었지만 회사측에서 요가 과정을 개설해 동료들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어 좋았으며, 요가 덕분에 스트레스 해소와 불면증에도 탁월한 효과를 경험했다고 한다.

LG이노텍은 요가 프로그램 개설로 임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원인인 근, 골격계의 질병을 예방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LG이노텍은 사내 요가 과정이 동료들간 허물없는 대화를 유도하여 한층 더 탄탄한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도 해내고 있다며 더 많은 직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미공장에서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온도조절기, 카운터, 파넬메타등 국내 최초 5상 스테핑 모터/드라이버, 모션 콘트롤러 등의 신제품들은 물론 최근 신규 사업으로 호평 받고 있는 레이저 마킹 시스템도 만나 볼 수 있다. 공장자동화업계의 선두 그룹인 (주)오토닉스는 1977년 6월 25일 '국제전자'로 설립된 이래 1988년 '오토닉스'로 상호를 변경, 1992년 '제29회 무역의 날' 100만불 수출탑 수상에 이어 '제37회 무역의 날'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1996년 인도네시아 해외지사 설립, 1996년 Japan Autonics 현지법인 설립, 2001년 1월 Autonics USA 현지법인 설립, 12월 중국 상해대표처 설립, 2002년 중국 가흥공장 설립을 하는 등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자동화산업 분야의 초석이 되고자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오토닉스는 제어기기 및 센서 부분에서 다양한 제품의 영역을 구축하여 왔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와 많은 연구활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급속히 발전하는 자동화 산업의 환경에서 요구되는 혁신적인 기능과 성능의 제품을 개발·공급함으로써 미래의 자동화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주)오토닉스, KoreaPack 2005 참가

자동화 센서 및 제어기기 분야의 국내업체 1위인 (주)오토닉스가 한국국제종합전시장(KINTEX)에서 개최되는 KoreaPack 2005에 총 18개 품목을 출품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포장기계산업에

